소비자 마음 사로잡았다

무주반딧불농 특산물대축제 11억6000여만원 매출 성과

무주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한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에서 11억6,000여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특히 축제 첫날 비가 내리고 추위가 계속된 속에서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증가해 인기를 실감했다.

7일 무주군은 농·특산물대축제를 통해 고품질의 반딧불 농·특산물을 신선하게 공급한 것이 도시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무대와 판매 공간을 일원화해 집중도를 높이고 배달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 점, 카드결재 및 소포장 판매를 진행한 점 등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총 6만3,000여명이 다녀갔으며 149동에 이르는 농·특산물판매장에서만 5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해 축제기간 진행한 수도권 판촉행사와 농협, 반딧불 머루한우 시식판매를 통해서도 4억1,000여만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또 한국생활개선회 무주군연합회에서 운영했던 향토식당을 비롯해 관내 체험마을과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했던 간식부스, 두부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4,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무주읍 앞섬마을 등 20개 마을에서 참여했던 마을로 가는 축제, 사과 따기 및 판매, 와인동굴을 통해서도 총 1억6,000여만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

무주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한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에서 11억6,000여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서울에서 온 차경미씨(70세, 강남구)는 "반딧불 농·특산물을 산지에 직접 와서 사게 돼 기분 좋다"며 "물건도 좋고, 환경이 깨끗하니까 믿음도 가고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기분도 좋고, 먹거리들도 다 맛있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온 김희광씨(68세, 광주)는 "적상산에 가서 단풍도 보고 머루와인동굴에 가서 와인도 맛보고, 또 여기 축제장에 와서 절임배추랑 양념 등 김장거리 제대로 준비해 간다"며 "친구들 내외 여럿이서 같이 왔는데 다들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달합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특설무대) 일원에서 개최된 제3회 무주반딧불농·특산물대축제는 무주반딧불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판매하고 가을여행 주간(10월21일~11월5일)과 연계해 무주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평·전시회와 향토 먹거리를 비롯한 간식먹거리, 기능성 버섯 전시·판매, 농기계 전시·판매 등 부대행사가 3일 내내 열렸으며, 자연농업 및 귀농·귀촌, 건강체험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상담 부스 등도 운영돼 인기를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도우미 지원

70세 이상 고령농 · 65세 이상 부녀농 대상… 80명 투입

무주군이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포함) 매입을 위한 도우미(인력) 지원 사업을 펼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도우미(한국농업경영인 무주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는 70세 이상 고령농과 65세 이상 부녀농의 공공비축미곡 운송을 돕는 사람들로, 무주군은 군비 1,600만원을 투입해 80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그동안은 운송수단이 따로 없으니까 경운기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 교통사고와 부상의 위험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이제는 도우미들이 와서 무거운 쌀가마도 들어주고 차량도 직접 가지고 와서 창고까지 운반도 해주니까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해 총 50,378포대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포함)를 매입할 예정으로 12월 8일까지 무주와 무풍, 설천, 적상, 부남면 등 6개 읍면에서 미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군 친환경농업 윤수진 담당은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면서 공공미곡비축미 매입 때마다 포대(40kg) 중량으로 인한 불편, 운반수단 확보에 대한 어려움,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걱정이었다"며 "매입 기간 동안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이런 걱정을 덜고 농업인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건조와 정선 지도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농업인들의 수고가 보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에도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주요사업장 방문 점검

무주군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7일부터 2일간 주요 사업장 11개소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17 행정사무 감사, 2018 본예산 심사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안성 공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및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수집은 물론 현안문제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의정자문위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들을 군정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해양 의정자문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절실하다"며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송열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 시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자주 현장을 방문해 현장감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1차 발굴 보고회

스마트 추모파크 조성 등 69건 3794억원 규모 발굴… 2차 보고회서 최종 확정

진안군은 7일 2019~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유하고 SOC, 문화·체육·관광, 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고용, 안전·지방행정 각 분야별로 발굴된 사업들을 보고했다.

또한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국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예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은 ▲진안고원 스마트 추모파크 조성(사업비 350억원), ▲마이산 루지월드 조성(사업비 100억원), ▲동향·상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사업비 72억원/42억원), ▲청년귀농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0억원) 등 총 69건 3,794억원이다.

진안군은 이날 발굴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2월 예정된 2차 보고회를 통해 검증,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19~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조서를 전북도에 제출한 후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항로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의 지속적 증가를 이어갈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개최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시군에서 여성농업인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7일 천천면 라봄리조트에서 지역여성리더양성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여성리더로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행복한 소통법과 리더로서 활력 있는 이미지관리법, 4차산업혁명과 리더로서 갖춰야할 자세와 역량 및 개발이라는 교육의 장을 마련,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 김광순 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의 도움으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중식제공 봉사 및 김장 담그기 지원, 한우랑사과랑 축제 참여, 자연정화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여성리더로서의 활동을 해왔다"며 "2018년에는 좀더 조직화된 모습으로 지역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정원 소장은 "농업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늘고 있어 생활개선장수군연합회가 지역리더로서 역할이 요구되므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리더로서의 마인드와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메아리

무진장소방서, 장수타코마리조트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무진장소방서는 7일 오후 2시 장수군 타코마리조트에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10개 유관기관 199명이 참여해 지역에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훈련체제를 확립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장수군 관내에 6.8의 강진이 발생해 리조트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부여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재난발생 따른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활동과 인명대피를 시작으로 소방대의 인명구조와 현장활동, 마지막으로 피해시설 복구 순으로 진행돼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현장감 있고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또 지진과 화재라는 재난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대응 조치사항을 수행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점검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일선 서장은 "체계적인 훈련으로 사전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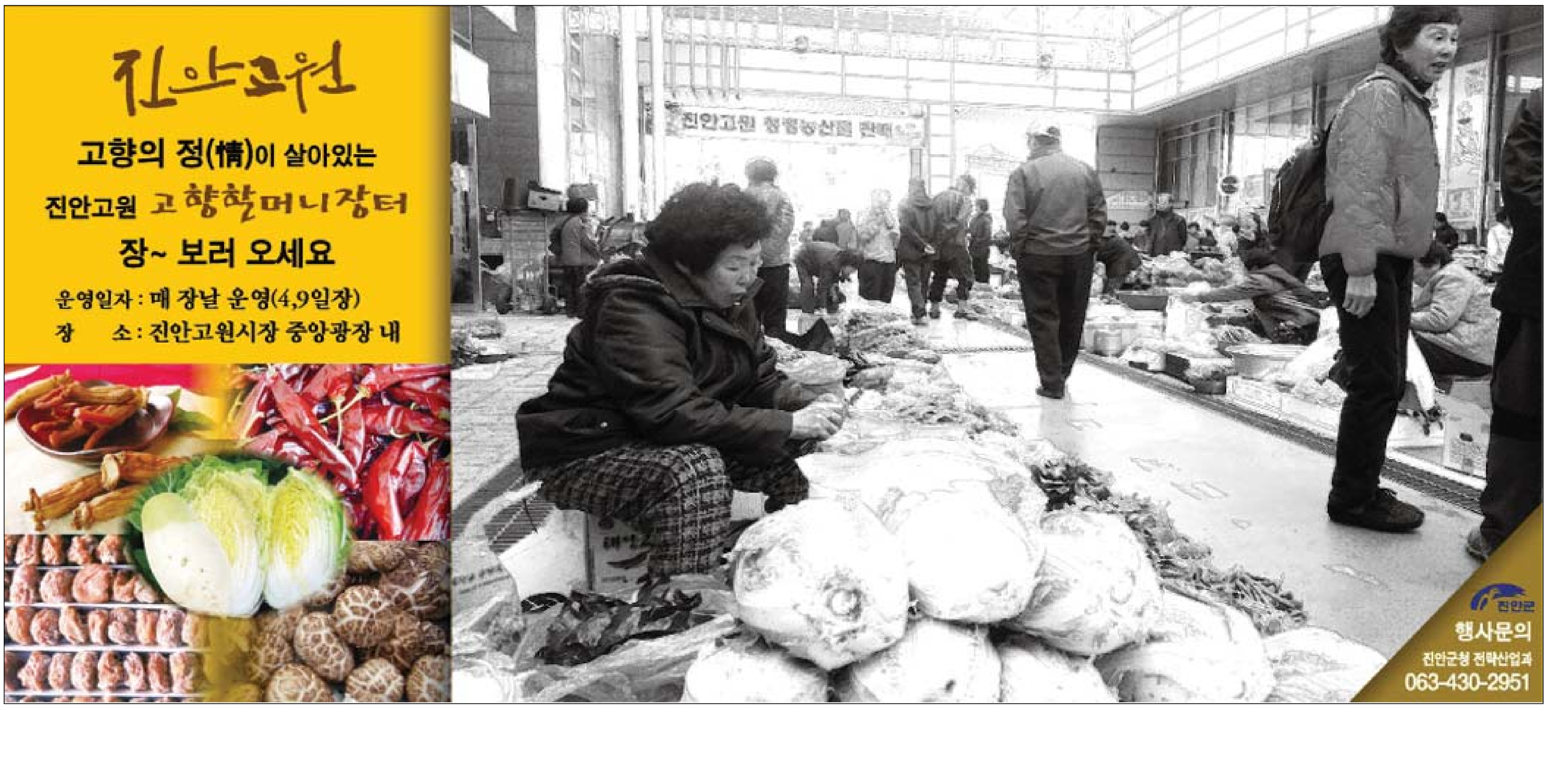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수 수남초 다문화이해교육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에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전북 장수 수남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67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권역 외에서 실시된 최초의 다문화 이해교육 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또한 정기적인 지역행사에 매회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센터의 인지도 또한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날이 갈수록 교육 의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내용 또한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하여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점 또한 높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수 수남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다문화이해교육은 이 학교 최초로 실시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인 만큼 베트남 외 4개 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체험부스별로 30분씩 제한 시간을 두고 전통 문화를 다채롭게 구성해 선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